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세월호를 인양하라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벽두부터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기가 겁날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합니다.

온전한 인양으로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수색작업이 종료된 후 실종자 수습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인양계획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용과 방법을 문제삼지 말고 희생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체는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증거물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진도 앞바다에 영원히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은 진짜 범인을 밝혀낼 수 있으며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특하면 예산문제를 들먹이는 정부. 돈 때문에 인양이 어렵다구요?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 문제로 국민의 귀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 청원운동** petition.sewolho416.org
서명을 받아 2월 14일 팽목항으로 모아주세요.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특별조사위 흔들지 말라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곧 이 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과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조사위원에 추천하는 등 그 준비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예산문제를 빌미로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구조실패와 부실 대응,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별법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제정되었듯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2015.01.26 ~ 02.14 19박 20일



1월26일 안산합동분향소-수원 27일 수원-오산 28일 오산-평택 29일 평택-천안 30일 천안-세종(대전) 31일 대전 2월1일 대전-계룡(논산) 2일 논산 3일 논산-익산 4일 익산-전주 5일 전주 6일 전주-정읍 7일 정읍-담양 8일 담양-광주(300일 전야문화제) 9일 광주-나주 10일 나주-무안 11일 무안-전남도청 12일 전남도청-해남 13일 해남-진도 14일 팽목항 문화제

Y 전 구간, 주말, 자기 지역에서 함께 걸어주세요. 팽목항 문화제에 함께해주세요. (2월 14일 오후 5시)

문의 : 010-8010-3223 후원 : 국민은행 014101-04-155232 성상영(세월호도보행진)